

특별취재



김제시 요촌동 주민센터

독거노인 위한 청소봉사

김제시 요촌동 주민센터(동장 송혜숙)는 동북지구세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지난달 31일 관내에 거주하는 무의탁 독거노인 박모씨(83세)세대의 집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도움을 받은 세대는 폐암으로 치료중이며 자녀가 있으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오랫동안 혼자 거주하였고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을 치우지 못해 주거공간에 각종 폐기물 등을 쌓아놓은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봉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작은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된 하루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요촌동은 "음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선도지역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 실현하고자 서비스의 신청·접수·처리 등 기존 복지업무 수행하던 복지팀과는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복지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협력해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업무 등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정읍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불법광고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활동을 벌였다.

시에 따르면 교통수단(차량)을 이용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광고주들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형차부터 트럭과 대형 버스에 도색광고 또는 LED 전광판, 스피커 등을 부착하고 도로를 질주하거나 인도 및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등 불법광고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데다 통행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일제 정비 기간에 광고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 부착차량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광고물 정비 취지를 설명하고 육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신청하도록 계도활동을 펼쳤다.

시는 이러한 노력으로 기간 내 모두 684대의 불법 광고차량을 적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안군이 환경오염물질 투기 등 불법행위가 우려돼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은 28일까지 추석명절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상황실 및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환경오염행위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추석명절 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 위주로 기술 지원을 통해 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수원 수계·하천과 행안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추석명절 기간 중 작업량이 급증하는 공장 등 특별감시 대상지역 및 관련 시설도 사전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키로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풍성한 가을 깨닫고 변화하라!'

9월 김제지평선아카데미, 자산관리 방법과 자기개발 등 강연

평생학습 나눔 배움터인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9월에는 '깨닫고 변화하라! 그것이 곧 도전이다'라는 테마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풍성한 한가위와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를 맞아 시민 스스로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역할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작은 깨달음의 변화가 곧 도전임을 알려주는 강연을 할 예정이어서 울음을 유난히도 뜨겁고 무더웠던 폭염과 열대야에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초가을의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월의 첫 강연 1일(제480회)에는 백정선 핀북 대표이사 초청하여 "저급리사대에 효율적인 돈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노후와 현재를 위한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강연을 한다.



9월 8일(제481회)에는 이숙영 자기개발 클리닉 대표를 초청하여 "행복한 변화"라는 주제로 행복해지기 위한 두가지 열쇠로 나의 '일'과 나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사랑)'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다. 9월 22일(제482회)에는 민형기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를 초청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상식에 대해 "한법 그 친숙한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이날은 진봉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평선아카데미 체험의 날'로 진봉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인 하모니가 교실의 멋진 식전문화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양운업 인재양성과장은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대표취재인 김제지평선축제를 앞두고 "지평선아카데미를 찾아주는 시민들이 스스로 변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손님맞이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으로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좋은 강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날 캠페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홍보 및 '서다 보다 걷다' 보행 3원칙 전단지과 잣대 등을 배부했다.

부안경찰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교통 캠페인 실시

부안동초 앞에서 60여명 참가

부안경찰서(서장 강형신)는 지난달 31일 부안동초등학교 앞에서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군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부안개인택시조합, 부

안여성단체협의회 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홍보 및 '서다 보다 걷다' 보행 3원칙 전 단지와 잣대 등을 배

부했다. 강형신서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보행안전교육을 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정읍시문화공원 정비사업 추진 관련 묘지 정비

정읍시가 정읍시문화공원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 공원 내 묘지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문화지원과 시민협력 확충을 위한 정읍시문화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정읍시문화공원과 전복과천에 뒤에 신재한 분묘 일제조사를 벌여왔다. 조사에서는 유연묘 160기와 무연묘 133기, 모두 293기의 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는 유연묘 연고자들에게 이장을 요청했다. 8월말 현재 기준 이장율은 86%(138기)로, 시는 나머지 22기에 대한 이장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또 무연묘 연고자 찾기도 주력. 지난 7월부터 현지 안내판 설치와 시 발행 홍보물인 '정읍소식 2' 게재 등 연고자 파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당신멋져 봉사대, 재능나눔 봉사활동

김제교월동, 옥산동 산정마을에서 무료 장수사진 촬영 등

김제시 교월동 '당신멋져 봉사대'(공동대표 최창의, 김주택)는 지난달 30일 옥산동 산정마을에서 새마을부녀회원들과 함께 무료 장수사진 촬영 및 증식제공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만들기를 실천해나가고 있는 '당신멋져 봉사대'는 2015년 9월 교월동 입석마을을 시작으로 매월 교월동 소재 마을을 순회하며 무료 장수사진 및 증식제공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

개 마을 어르신 4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장수사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무료장수사진 봉사활동에는 아모레퍼미넌트(조현경), 박준순 미술실(박준순), 뽀빠이포토(이성수), 제일사회복지관(여은경) 등의 회원들이 함께하였으며, 또한 장수사진 촬영이후 새마을부녀회원(회장 이영이)들이 직접 정성스레 국수를 준비하여 마을 어르신들과 맛있는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종규 부안군수,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임원 대상 특강

김종규 부안군수가 최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임원 및 각 읍면 경로당회장 등 5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부안군지회 요청과 평소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김종규 군수의 의지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규 군수는 부대 만복의 영웅들이 왔다 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안의 오복 오감과 생겨부인의 다양한 일화와 내용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부안=이옥수 기자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기요금의 약 40% 절감됐다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로 에너지 절감 '톡톡'

정읍시, 환경기초시설에 추가

정읍시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장치(이하 태양광 시설)를 설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5억6천만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영파동 일원 광역매립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각각 71kw와 139kw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광역매립장의 경우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올해 1월부터 8

월 말까지 전기요금이 1,73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50만원에 비해 약 40% 절감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태양광 시설 규모(210kw)를 감안할 때 연간 약 3천400만원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할용선별장 상부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상수 등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시설 설치사업을 확대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보건소, 치매 예방 캠페인 활동 전개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올해 제9회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이하여 9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치매 예방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김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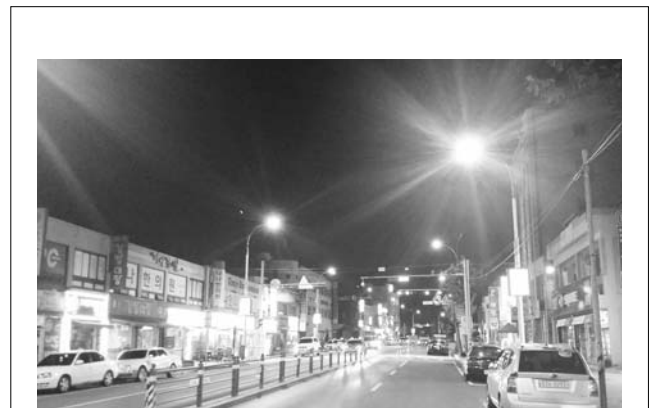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유증상자로 발견될 시 전문병원 연계 치매 진단 및 간병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환자로 진단 시 건강보험료 적정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치매 치료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9월 2일에는 김제시내 전통시장 앞에서 치매 예방 캠페인 및 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치매 극복의 날(9월21일)은 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알츠하이머 병협회(AAD)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 환자 돌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보건소 1층 치매 상담실 및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유증상자로 발견될 시 전문병원 연계 치매 진단 및 간병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환자로 진단 시 건강보험료 적정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치매 치료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치매는 평생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사회참여를 통한 신체 활동 및 인지능력 향상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며 치매 환자의 발생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매우 힘든 질환이므로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김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시내 주요 대로변의 가로등을 시가지를 대낮처럼 환하게 탈바꿈 하 게끔 최신 LED가로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김제시, LED가로등으로 '환하게'

구도심 중심지인 서독안경원에서부터 교체

김제시(시장 이진식)가 시내 주요 대로변의 가로등을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최신 LED가로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절감되어 있는 시가지를 대낮처럼 환하게 탈바꿈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는 올해 예산 6억 5천만원 을 투입하여 구도심 중심지인 서독안경원에서 현재A, 안전여객에서 대방A, 구쌍용자동차에서 명월 이발관까지 기존 메탈 가로등 494 기를 LED가로등으로 교체 완료했다.

또한 이번 2차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내권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할안

로써 대낮처럼 환하게 야간경관 개선과 밝길 안전 교통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연간 8천만원 정도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은 "LED는 타 광원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전력난 해소와 전기요금 절약, 가로등 유지관리에 재정적 절감효과를 주는 장점이 있다"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밝고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